논어 8편 태백 18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巍巍乎，舜、禹之有天下也，而不與焉。」

독음 · 자왈 외외호 순우지유천하야 이불여언

쉬운 풀이(요약) · 순과 우는 천하를 가졌으나 그것을 자신의 사사로운 소유처럼 여기지 않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巍 높을 외 외 / 乎 어조사 호

舜 순임금 순 순 / 禹 하우씨 우 우 / 之 갈 지 / 有 있을 유

天 하늘 천 천 / 下 아래 하 하 / 也 어조사 야 / 而 말이을 이

不 아닐 불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焉 어찌 언 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